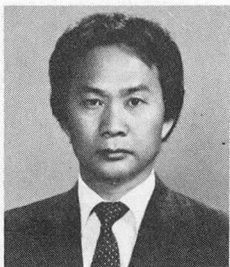


쇠고기 수입과 양돈산업의 대처방안

과거의 쇠고기 수입은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적인 수입이었던데 비해, 이번 수입은 미국의 강력한 수입개방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파급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정 찬 길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지난 1985년부터 휘몰아친 국내 소값파동으로 경기 침체의 악몽을 아직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백여만 소 사육농가들의 격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85년 5월에 중단됐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수입을 재개하게 된 이유로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고 국내 수급상 부족한 물량을 메우기 위한 것을 앞세우고 있다. 예상 수입물량은 연말까지 관광호텔용 고급 쇠고기 3천톤과 일반 쇠고기 1만 1천5백톤으로 총 1만4천5백톤에 달해 큰 소 10만마리분에 해당된다. 이처럼 현재의 국내 소 사육두수로는 쇠고기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정책당국의 무계획적인 축산 행정운용과 정책수행 과정에서 중간평가에 의한 사전적 조정기능의 부재에 있다.

양의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지난 번 소값 파동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던

농민들간에 심리적 압박으로 국내 증식이 정체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소값 파동으로 이어져 소의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

소 사육과 생산기반의 붕괴는 작물재배 이외에 적절한 소득원이 없는 양축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한번 무너진 소 사육기반은 소의 번식생리상 그 기반을 복구하는데 임신연령 14~24개월, 임신 9개월, 비육기간 17~19개월로 총 40~52개월이 1 생산주기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의 쇠고기 수입재개는 과거 수급조절과 수입 개방 압력이 없이 자율적인 수입과는 달리,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과 국내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분명히 다른 양상의 파급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국내 쇠고기 가격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국내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차를 방지하면 혹은 방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수입 폭을 계속 제한한다고 해도 국내 쇠고기 가격의 하락내지는 억제에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하여 생산비를 삭감할 수 없는 한우 사육농가들은 수익성의 악화로 소 사육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쇠고기 수입의 영향은 한육우산업 뿐만 아니라 가장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는 양돈산업 및 육계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낙농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낙농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즉, 낙농부문의 부산물인 숯송아지의 육용비육의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쇠고기의 수입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쇠고기 수입으로 형성되는 국내 쇠고기 가격이다.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가장 근접한 대체 육류이므로 쇠고기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돼지고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파생적 결과가 양돈산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수입 쇠고기의 방출로 인한 쇠고기 및 한우의 가격변동을 보면, 1978년 600g당 894.5원이 하락하였다. 이때 실제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3,160원(1980년 불변)

이었으므로 수입 쇠고기의 방출이 없었다면 4,055원까지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입 쇠고기의 방출이 가장 많았던 1983년에는 600g당 쇠고기 가격이 4,885원까지 상승하여 실제가격 3,867원과 비교하여 1,017원의 가격하락 효과를 가져왔다. 쇠고기 방출로 인한 도축지연으로 1982년 935원, 1984년에는 336원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

<표 1> 수입쇠고기 방출에 의한 가격 하락 효과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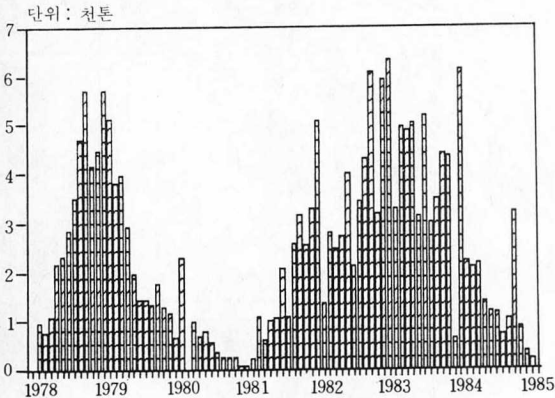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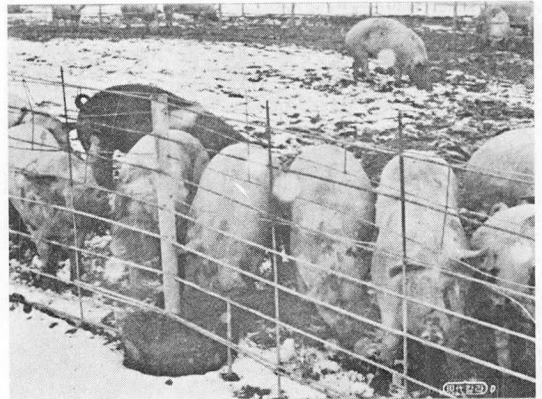
연도	수입 쇠고기 방출량	소비자가격(600g)		큰소가격(1,000원/350kg 상)			
		수입효과	실제가격	전년효과	당년효과	합계	실제가격
	%	원	원				
1978	40,444	-894.5	3,160	-3.9	-333.5	-339.4	913
1979	27,333	-357.4	2,908	-37.9	-134.1	-172.0	722
1980	6,876	-147.7	2,892	-25.7	-55.4	-81.1	677
1981	23,930	-549.9	3,346	-6.2	-206.3	-212.5	867
1982	45,010	-935.6	3,598	-20.5	-350.9	-371.4	1,039
1983	49,408	-1,017.6	3,867	-38.0	-381.7	-419.7	1,107
1984	16,549	-336.5	3,757	-43.4	-126.2	-169.6	946
1985	4,682	-94.8	3,076	-14.5	-35.6	-50.1	67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 장기 수급 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46, P 33~34,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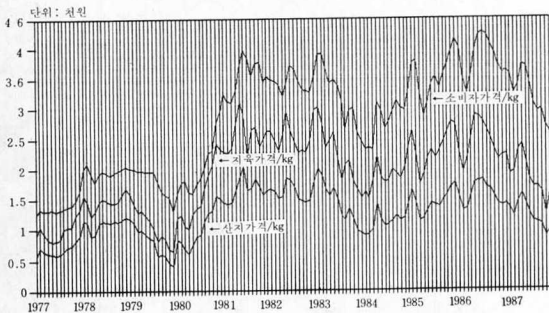
수입쇠고기의 방출로 상승할 가격이 억제 내지는 하락하였는데 즉, 1978년에 22.1%, 1982년 20.8%, 1983년 20.6%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하락 효과는 돼지고기가 쇠고기로 대체되어 돼지고기의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양돈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대체의 정도를 보면, 학계나 연구소들의 교차탄력도 추정치를 종합 평가한 결과 0.5였다. 따라서 쇠고기의 수입 방출로 발생한 평균 20% 정도의 가격하락은 다른 조건이 불변한 것으로 가정할 때 약 10%의 돼지고기 수요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가 집중되었던 1981, 1982년에 양돈경기가 오히려 좋았던 것은 사육두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수입 쇠고기의 방출이 4만4천4백톤으로 매우 많았던 1978년의 경우 7천톤의 돼지고기까지 수입되었고,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로 과잉생산이 겹쳐서 생산가격의 폭락으로 이듬해인 1979년에는 돼지 파동이 일어났다. 쇠고

기의 방출이 6천8백톤으로 가장 적었던 1980년에는 돼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1, 1982년에는 호황을 누렸는데 <그림 1>, 이때 돼지의 사육두수는 1백70만두, 소의 사육두수 역시 1백30만두 수준으로 사육규모가 매우 적는데 영향을 받았다. 이와같은 호황에 자극받아 홍수 입식에 따른 돼지의 사육두수가 급증하여 3백60만두에 이른 1984년에 또 한번의 불황이 닥쳤다. 이러한 주기성은 1986년 호황, 1987년 불황, 1988년 중반이후 회복되는 경기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2>



<그림 1> 수입쇠고기 월별 방출량



<그림 2> 돼지 지육, 정육 월별 가격

이번 쇠고기 수입의 과급영향이 과거 1977~1984년까지 이루어 졌던 때와 동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양상을 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소한 이번의 한육우 사양여건이 과거와는 몇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한육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량 충족을 위한 적정년초 사육두수인 360만두에 약 90만두나 부족하다. 둘째, 쇠

고기 수입개방압력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세째, 급증하는 한육우 수 감축을 위한 도축제한조치가 무제한 무기한 방치되고 있어 가임중 암소가 홍수 도축되고 이에 따라서 암소 비율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네째, 한육우 생산진흥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 즉 한우 증식사업, 번식단지 조성사업, 송아지 입식사업, 특별지원사업 등과 같은 한육우 생산진흥사업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대책들이 다시 한육우 증식을 위해서 제도화 되어 강력히 추진되지 않는 한 한육우 사육두수는 당분간 정체내지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계속적인 쇠고기 수입방출은 국내소의 도축을 지연시킬 것이나 그 힘은 수입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현재의 사육두수는 국내공급을 충당하기에는 절대 부족하고 신속한 증식 역시 가임암소의 홍수도축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당분간은 한육우의 산지가격의 상승의 둔화 내지는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쇠고기 공급 부족 여건과 산지소 가격 상승을 지속적 쇠고기 수입의 구실로 이용할 것은 물론, 수입폭의 확대라는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앞으로 양돈업계는 쇠고기의 수입폭과 그 방출에 따른 쇠고기 가격의 형성, 정부의 한육우 생산증진 등의 한육우산업의 사항변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부정적 과급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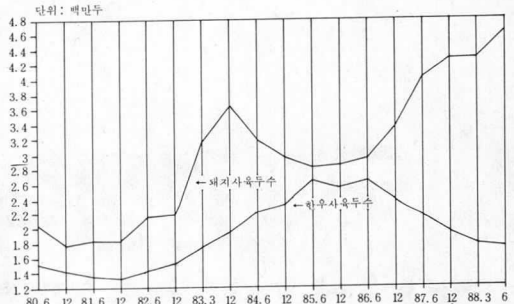
1989년의 쇠고기 총 수요량은 14만 9천톤으로 예상



되고 90% 국내자급을 가정할 때 13만 4천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80만 8천두의 성우를 도축하여야 한다. 80만 8천두를 증식분으로 도축하기 위하여 최소한 한육우의 연초 사육두수는 2백60만두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1988년 현재의 사육두수 1백 70만두로는 정상적 증식이 약 54만두에 불과하므로 약 27만두가 부족하다. 따라서 양돈업계는 현재 사상 초유의 사육두수인 4백60만두에도 불구하고 90kg 성돈 가격이 1988년 9월 4일 현재 12만 5천원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육우의 사육두수가 1백70만두로 급격히 감소한 한육우 산업의 생산구조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돈의 사육두수와 가격은 역상관 관계에 있다. 즉, 한우의 가격이 높고 경기회복이나 호황국면에 있으면 양돈은 경기후퇴나 파동국면에 접하는 현상이다(그림3). 양돈산업의 불황이 극심했던 1983년말~1984년초에 90kg 성돈가격이 8만원 수준이었고 사육두수는 3백60만두로 생산과잉이었던 반면, 한육우 산업은 400kg 숯소 가격이 1백50만원 수준이었고 사육두수는 2백만두 수준으로 호황을 누렸었다.

양돈업계는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사항인 즉, 계절적으로 비수기이며, 또한 지육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계절지수가 각각 연 평균 수준보다 낮은 하기계절인 점, 사육두수가 사상초유인 4백 60만두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과는 반대로 생돈가격이 기대 이상인 것을 호재로 여기고 계속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은 자제해야



〈그림 3〉 한육우 돼지 사육두수

한다. 이처럼 1988년 6월 현재 사육두수가 2년 전보다 57%로 배 이상 폭증하였고, 양돈사료 역시 1987년말 현재 전년대비 35.6%나 증가한 것을 쇠고기의 수입 방출과 연관하여 볼때 결코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항이다.

현재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증식효과는 자돈에서 6개월 후, 임신모돈으로부터 9개월 후인 1989년 중반에는 6~7백만두가 될 것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들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량 확대, 돈육 가공품의 수입량 증가와 관련, 관세인하 등 악재가 늘 도사리고 있으므로 쇠고기 수입으로 유발되는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육두수의 조절준비가 급선무이다. 이와 같은 대비는 늘 사전적이어야 하며 사후적이어서는 악순환만 초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